



남원 대강면, 온열질환 예방 복지행정 펼쳐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저소득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1일 1가구 방문을 추진해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없도록 보살피는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며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특히 폭염에 따라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취약계층 중심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11일 주말 동안 관내 24개 마을 경로당 30개소를 방문해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특히 1일1가구 방문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쿨매트와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현재 대강면에서는 △하하호호 마실팁방매 △안부 물OO, 반찬 나누OO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검진 △찾아가는 진(원)동기 안전점검 서비스 △찾아가는 생활복지분야 서비스 △찾아가는 산림치유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 이불빨래 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한편 김종표 면장은 "어르신들이 폭염에 취약한 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축협,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남원축협(조합장 한정석)은 지난 23일 회의실에서 축산농가(조합원) 교육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유형을 설명하고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한정석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법을 공유하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금융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청하면 주민자치위, 김장나눔 배추·무 식재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28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0여 명이 참여해 청하면 관산리 일원 밭(600㎡)에 사람의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한 배추와 무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배추 500포기 이상과 남은 지리에 추가로 무를 심었으며 오는 10월 말에 수확해 정성껏 김치를 담아 관내 경로당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300여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다양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김장 나눔 행사, 하반기는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해 사회적 나눔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자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배추와 무를 잘 가꾸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올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유미 청하면장은 "바쁘신 중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주시는 위원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자치의 선도자로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산면 주민자치위, 김장나눔 배추 식재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영숙)가 28일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배추 모종 심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추 모종 식재는 금산면 구월리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진행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팔을 걷어붙이고 작업에 나섰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식재한 배추 1,500포기는 오는 11월 수확할 계획이며, 수익금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허영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른 새벽부터 선풍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철 금산면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눔봉사에 참여해 주신 금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따스한 손길이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자긍심 높인 올림픽 선수에 감사 인사

전북자치도, 양지인·김예지 선수 등 초청 격려... 10개종목 15명 출전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예 등 이미지를 드높인 선수와 지도자에게 도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준 '2024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 선수와 우수지도자를 초청해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들을 대표해 직접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단은 총 15명(선수 9, 임원 6)으로 전북자치도 대표선수 10명, 공기관총 은메달 리스트 김예지 선수와 전북 출신인 금메달리스트 양지인 선수, 태권도와 수영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획득할 수 있게 지도한 정을진(경희대), 이정훈(대한수영연맹)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예지 선수는 전북자치도 입실군청 소속으로 2024 파리올림픽서 10m 공기권총 종목서 은메달을 획



득, 한국의 대표적인 자격 선수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경기중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정확성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 이번 성과로 인해 차세대 사격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등 앞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대표선수 김예지 선수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그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정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전북 출신인 양지인 선수와 정을진, 이정훈 지도자에게 각각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의 성과는 전북 도민들의 응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샘골농협-한우육종조합-의성축산농협, 고향사랑 상호기부

정읍시 샘골농협과 전북한우육종조합, 의성군 의성축산농협은 28일 정읍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행사를 통해 양 지역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동참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샘골농협과 전북한우육종조합의 임직원들은 의성군에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고, 의성축산농협의 임직원들은 정읍시에 500만원을 기부하며, 상호 간의 지역 발전을 응원했다.

샘골농협 허수중 조합장은 "이번 상호기부행사는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축산농협 김홍길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양 지역이 더욱 발



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의 상생과 발전에 동참하고자 뜻을 모아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는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보건복지 자원 활용서 200부 제작·배포

남원시는 지역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 '보건복지 자원활용서' 책자 200부를 제작, 보건복지부서, 28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이 통합사례 관리를 접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어떤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소개하고 있다.

종류에는 위기 정도에 따라 반드시 개입이 필요한 △위기 단계(저소득, 학대·방임, 1일 가구 등), 불면 해소 등을 위한 △관심 단계(장애인, 다문화 등 이주민),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위한 △행복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지역 어디에서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주민자치위, 여수시 화양면 방문

남원시 노암동(동장 차미화)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8일, 자매결연 도시인 전남 여수시 화양면을 방문해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임 차미화 동장과 화양면 면장의 상견례와, 오는 10월 남원에서 열리는 국제드론제전 홍보부대 문화의 달 행사 등을 홍보하였으며, 남원누리시민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여수시 관내 식당 삼정가 등을 방문해서 국제드론제전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곽일근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 화양면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이번 행사에 여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선운사 등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어져

고창군에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웃돕기성금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관내 개인과 단체·기업 3곳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성금품을 전달받았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선운사복지재단 부주지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도움을 받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2000kg를 기탁했다.

유한회사 엠메트,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노인청춘대학 학생일동이 각각 100만원씩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하다. 소중한 나눔의 손길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2회 전주사랑 전북자치도 가요제 9월 28일 개최

수정관한울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주관하는 '제2회 전주사랑 전북특별자치도 가요제'가 9월 28일 전주시 완산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다.

문화예술의도시, 맛과 멋의도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참여에 기여하고자 열리는 이번 가요제는 전주시, 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법인), WBC 복지TV 전북방송, 대명가요TV, 노래동호인 모임 등이 후원한다.

가요제는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예선과 오후 3시 본선으로 치러지며, 전북자치도민들과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가족 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전국의 각 대회에서 대상(1등, 최우수상)수상자, 상업적인 성향특성 참가자는 제외한다.

참가 신청은 신청서 제출 및 메일, 전화상담으로 이뤄지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신청은 9월 20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3-231-6669, 010-7304-5665, 010-6661-2784)와 메일(yangokim@hammail.net), 팩스(03-287-6676)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정읍 보건소, 아파트 중심 허약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보건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아파트 중심 허약(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수성동의 아파트 3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허약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별로 8회씩 방문해 통합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건강검진, 낙상예방 교육, 뇌졸중 및 심근경색 대처법 교육, 구강 및 영양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치매 예방교육과 노인우울증 예방교육은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또한 시립요양병원과 협력한 한방진료도 포함돼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다방면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토달공예 전문강사를 활용한 자기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인지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농기술센터 김쌍수 소장, 생활개선회 발전기금 기부

임실농업기술센터 김쌍수 소장이 지난 23일 생활개선회 발전을 위해 (사)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 발전 기금으로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22년 8월 임실군과 농촌진흥청 간 인사 교류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김쌍수 소장은 재직하는 동안 딸기 농가 재배면적 확대와 비기립 고추 양액재배 실증시험 추진 등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했고, 농업기술센터 및 미생물배양센터 신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임실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필봉농악 활동과 직원들에게 '삼도설장구'를 가르치는 등 지역문화 계승 발전과 유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봉황인재학당에 애환장학금 1백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번에 2년간의 인사 교류를 마치고 8월 29일자로, 농촌진흥청으로 복귀하는 김쌍수 소장은 이임식을 생활개선회 발전 기금 기부로 대신했다.

김쌍수 소장은 "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는 임실의 대표축제인 임실치즈축제 한뜨음식관 운영과 애환장학금 기부, 육정호 들레길 장미꽃길 조성 등 지역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 앞으로 지역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